

2008년 7월 16일 말씀

여자교역자는 내적인 것은 잘 하는데 운동 하는데는 잘 못 쫓아다닙니다. 그러니 남자와 여자 교역자들이 섞여서 잘 해야 합니다.

수련회 할때 잘 들하십시오. 수련회는 특별하고 좋은 날입니다. 훈련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편히쉬라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수련회를 잘 못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꾸 훈련을 하고 한다는데 그러면 피곤합니다. 직장에서 찌들리고 교회에서 찌들리고 학교에서 찌들리다가 수련회 가서 쉬러가는 것입니다. 이렇게 안하면 다음에는 해수욕장으로 가버립니다.

가정국들이 자녀를 신경을 안 씁니다. 나무 좋아하고 돌 좋아하면 그것만 신경쓰듯 자녀도 부모가 신경써서 만드는 것입니다. 10년만 신경쓰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. 나무는 계속 다듬기에 달려있고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있습니다.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-517. 힘들지만 어릴때부터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. 어린마음을 가지고 해버리면 됩니다. 컸을 때 잡으려고 하면 안됩니다. 어렸을 때부터 신경쓰고 잡아줘야 합니다.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다 시켜야 합니다. 어렸을 때는 많은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집중적인 것을 배우려고 하면 그렇게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. 애들 교육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.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하다보면 못합니다. 배우다가 제일 잘 하는 것 하나를 쫓아 다녀야 합니다. 집중력을 가지고 전문가 가 되어야 합니다. 대학교 가면 전문으로 배우고 운동선수들이 배우듯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. 터득한 다음에 이것 저것 자꾸 가르쳐줘야 합니다. 신앙도 철통같이 넣어주어야 합니다.

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. 마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. 우리 아버지 나 이 먹고 돌아가셨는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. 우리 부모님 맨날 나를 걱정했습니다,. 자기보다 도 훨씬 잘 되었는데도 맨날 걱정합니다.

애들 관리하는 자들도 걱정하려면 끝이 없습니다.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